

공립등산학교 유치 본격화

진안군, 진안경찰서·진안소방서와 공모사업 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그 첫 행보로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와 함께 올바른 등산 문화 확립과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올바른 산행 방법과 정보 부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산립 훼손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 공조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산악활동 안전사고 예방체계 및 구호 활동 등을 위한 협력이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지역은 미야산, 운장산, 구봉산 등 수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관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와 함께 올바른 등산 문화 확립과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서부권의 많은 국민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춘 진안군에 공립등산학교 설립과 운영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림청 산하 국립등산학

교는 속초등산학교(동부권)가 2018년부터 운영중이고, 밀양등산학교(남부권)는 2024년, 보은등산학교(중부권)은 2026년에 준공 예정이며, 서부권 등산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등산학교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 시행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무주군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아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463개 성분 분석이 가능한 이 검사는 관내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 시료(0.5~1kg)와 의뢰서를 농



용하는 PLS 제도가 시행되는 등 농산물 안전기준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면서 "무주군도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산물 안전분석 실 가능을 준비해 올해 1월 2일부터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막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만들어 친환경 무주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노인 이·미용·목욕비 바우처 카드 상반기분 포인트 지급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2024년 노인 이·미용 및 취약계층 목욕비 바우처 카드 포인트 상반기분을 지급했다.

장수군은 2024년 관내 이·미용 업소 및 목욕장소 총 57개소(이미용 55, 목욕탕 2)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업체에서 이·미용 및 목욕비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및 취약계

층 목욕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증진과 품위 유지를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사용 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이·미용비는 연간 120,000원(반기별 60,000원), 목욕비는 연간 72,000원(반

기별 36,000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미용 및 목욕비 바우처를 통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보다 편안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업체들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행복한 장수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력

무주군, 담례품·공급업체 선정·발표… 24개업체 51개 상품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2024년 담례품과 공급업체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선정된 담례품은 무주안성천마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24개 업체의 51개 상품으로 '100% 천연스틱 꿀(45포)'과 '천마차', '누드옥수수', '와인족목체험' 등 12개 상품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무주산골문화재 접시 3종 세트'가 '무주산골문화재 굽즈 패키지'로, '무주선물상자'가 FNC저온작물과 100% 사과즙으로, '별초 대행 서비스(9만 원)'는 '별초대행 서비스 할인권(3만 원)'으로 교체하는 등 7개 상품을 소비자 선호도와 10만 원 기부자 맞춤 금액 상품으로 변경했다.

무주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유영주 팀장은 "올해는 기부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 속에서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며 "무주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보람과 함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 기부하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농·축산물 15개 상품을 비롯해 머루와인과 천마기공품 등 가공식품 26개 상품, 반딧불·신비 탑과 이용권과 산골영화제 등나무온동장 입장권 등 관광·서비스 8개 상품, 그리고 무주사랑 상품권과 포인트 기부하기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안내 리플렛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주자를 제외한 자자체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고향사랑e음), 전국 NH농협은행에서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 원 초과 금액은 16%)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담례품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음주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은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통관리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다발 요일 및 시간대를 심층 깊게 분석하여 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진안경찰은 아기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상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우려 예상지역을 선정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음주운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진안군은 마령면 소구모 배수개선 사업이 전라북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사업은 최근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상이 이어짐에 따라 오래전 설치된 배수로가 그 양을 소화하지 못해 농작물 침수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배수로 확대 및 배수문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진안군에 선정된 마령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덕천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올해 3월까지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억원(도비 8억, 군비 2억)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군은 마령지구 소구모 배수개선사업 이외에도 대구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연장지구에 국비 58억, 대량지구에 54억을 기 확보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장지구와 대량지구의 상습 침수 피해가 해소 및 지역주민에게 영농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